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Self and the Spouse and Marital Quality : Comparison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오 선 주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
Professor : Oh, Sunjoo

목 차

Ⅰ. 서 언
Ⅱ. 결혼의 질과 관련변수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marital quality of the husband and the wife. Marital quality was measured in two aspect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t the first step of the regression analysi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entered, at the second step, variable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 the third step, variable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 were added.

Age group of 35 and under is higher in marital satisfaction or lower in marital conflict than that of 36 to 40. People who grew up in Chungchung area are lower in marital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 grew up in Seoul and adjacent area, and those who grew up in Chunla area are higher i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increases when people are less educated. Marital conflict decreases when the husband has high income. Religion i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of the husband. Stability is related to both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Sociability of the wife i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of the husband, and responsibility of the wife is related to her own marital conflict. Responsibility of the husband is related to marital conflict of the wife. This result shows that the husband is expected to perform the instrumental role and the wife the expressive role.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whe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couples are constructed. First, family life cycle needs to be considered whe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are offered. Second, regional differences in family culture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idea that conjugal

role relationships can be flexible needs to be included i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urth, programs to improve stability, responsibility and sociability are needed for wives. Fifth, programs to improve stabil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offered in work settings for husbands.

주제어(Key Words):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결혼갈등(marital conflict), 부부관계(conjugal relationship)

I. 서 언

전통적인 한국 가족에서의 가족의 중심은 부자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부자관계에 비하여 이차적이었으며,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지배복종의 관계였다(최재석, 1982). 이러한 가족관계의 윤리는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부부관계에서도 다른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이 중요시되었다(송성자, 2001). 그러나, 한국사회가 일제 식민지 시대, 8·15광복, 6·25전쟁과 같은 사회변화를 겪고,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어 가면서, 한국가족은 외형상의 변화와 함께 가족가치관의 변화도 경험하게 되었다. 부부관계는 부자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부부관계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으며, 종적 관계가 평등적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한번 결혼하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도 감수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도 하나의 선택으로서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이영숙 외, 1999). 즉,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결혼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이혼률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부부관계의 질, 곧 결혼의 질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고 측정되어왔다. 많은 연구에서 결혼의 질은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의 두가지로 조사하였다.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은 단순히 만족도와 같은 차원의 다른 끝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만족도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부인의 결혼의 질만을 조사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부부라 할지라도 동일한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남편과 부인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됨에 따라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권희완, 1994; 김덕일, 1996; 김현정·김명자, 1999; Weigel & Ballard-Reisch, 1999). 본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이렇게 할 때에 결혼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의 질이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배경적 요인, 상호작용적 과정, 성격 특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Wamboldt & Reiss, 1989 in Larson & Holman, 1994),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결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통계를 보면 성격특성과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사유 중 부부불화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부간 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문제, 경제문제 등의 사유 중 부부불화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재인용). 부부불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부부간

성격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결혼만족도, 결혼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부부불화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수, 본인의 성격특성변수, 배우자의 성격특성변수 중 어떤 변수들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결혼만족도, 결혼갈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2)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떻게 다른가?

II. 결혼의 질과 관련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결혼의 질

연령에 따른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의 연령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숙, 1990; 홍보선, 1994; 홍정희, 1995; 문경실, 1995; 김혜경, 1996; 박수선, 1996).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도 연령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대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결혼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숙, 1990; 홍정희, 1995; 김혜경, 1996; 김현정 · 김명자, 1999).

교육수준과 결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대체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홍보선, 1994; 홍정희, 1995; 김혜경, 1996; 김덕일, 1996; 박수선, 1996; 박숙경, 1996; 이수정, 1997; Wilkie, Ferree, & Ratcliff, 1998).

직업적 지위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들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직업적 지위나 부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93; 홍보선, 1994; 홍정희, 1995; 문경실, 1995; 박수선, 1996; 김경신 · 김오남, 1996; 이미숙, 2000).

수입과 결혼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이나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숙, 1990; 최규련, 1993; 홍보선, 1994; 박수선, 1996; Wilkie, Ferree, & Ratcliff, 1998).

자녀와 결혼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전이기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로 Crohan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백인, 흑인 부부 집단 모두에서 자녀가 생기면서 결혼행복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가 된 부부는 결혼갈등과 긴장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Wilkie, Ferree, & Ratcliff (1998)의 연구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선(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Rogers(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결혼행복도나 결혼갈등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여부와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수정(1997)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보다 일반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그보다 근무시간이 적거나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결혼행복도가 낮았다. 반면 결혼갈등정도는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두 집단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와 결혼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혜경(1996)의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남자노인, 여자노인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가지는 결혼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변수들 중 연령, 교육수준, 수입과 종교를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밖의 변수로 성장지를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도시, 농촌으로 분류하여 사용한 연구들이 많으나, 본 연구에

서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특히 정치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지역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격이나 가족생활의 차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려져 있을 뿐 이에 대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선주(1997)의 출생성비와 남아선호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출생성비에 차이가 나타나, 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가족에 관련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의 낙태에 기인하는데,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남아선호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변수, 특히 성장지를 결혼의 질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오선주(1997)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과 문화가 가족생활과 관련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결혼의 질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지를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2. 개인내적 특성 변수와 결혼의 질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최규련(1984), 정승혜(1988), 이미숙(200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규련(1984), 정승혜(1988)의 연구에서 모두 남편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근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남편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남편과 달리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비취업주부는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인의 남편인 경우 부인과 달리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아분화수준과 결혼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이창만(1992), 금온순(1996), 박수선(1996)의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종숙, 1987),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덕일, 1996)들이 있다. 이종숙(1987)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 경향의 주부들이 외적통제 경향의 주부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덕일(1996)은 성인의 애착유형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세 집단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안정애착집단이 불안애착집단과 회피애착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중의 한 측면인 우울증이 결혼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ach & O'Leary, 1993 in Larson & Holman, 1994). 또한, 개인내적 특성 중 성격특성과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격특성 중 충동성은 결혼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elly & Conley, 1987 in Larson & Holman, 1994), 사회성은 결혼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ntler & Newcomb, 1978 in Larson & Holman, 1994).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격특성과 결혼의 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홍원희(199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영(1995)은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외향(E)-내향(I) 지표와 판단(J)-인식(P) 지표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대처양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각(S)-직관(N) 지표, 사고(T)-감정(F) 지표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표(1997)의 연구에서는 MBTI의 네가지 선호경향 중 외향성(E)-내향성(I)에서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성순(1998)의 연

구에서는 MBTI의 네가지 지표 중 외향/내향형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세 지표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김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E-I지표와 S-N 지표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T-F 지표와 J-P 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여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정서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문제상황이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달라지며, 이에 따라 결혼의 질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라 결혼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의 질을 살펴본 것은 아니나 부부의 MBTI성격유형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선희, 2000)가 있는데, 부부의 성격유형이 불일치할 때 아내가 P이고(인식형) 남편이 J(판단형)인 부부가 남편이 P이고 아내가 J인 부부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이 J인 경우에 P인 아내가 J인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적인 부부들 보다 외향적인 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 불일치할 경우 아내가 E, 남편이 I인 경우보다 E남편과 I아내의 조합인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등 부부관계와 결혼의 질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특성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네가지 성격특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특성불안수준이 낮을 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여주고(홍원희, 1992), 충동성은 결혼의 안정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격특성 중 안정성이 결혼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MBTI 성격유형분류중 외향성과 내향성을 비교해 보면, 외향적 성격 유형이 내향적 성격유형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원표, 1997), 사회성은 결혼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성격특성 중 사회성이 결혼의 질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남녀평등사상이 고취되고, 가정내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부부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격특성 중 지배성은 평등성을 추구하는 현대가족의 부부간의 갈등이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지배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제도적 가족에서는 의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족과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던 반면 현대사회의 우애적 가족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가족에서도 부부가 책임성이 높다면 결혼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결혼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격특성 중 책임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이다. 인천의 초·중·고교를 각각 2개교씩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남편용 질문지는 학생의 아버지에게, 부인용 질문지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생활수준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의 1개교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1개교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선정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남편용, 부인용 중 한가지만 작성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410쌍의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결혼의 질은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부부각자의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는 남편과 부인이 느끼는 만족도와 갈등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 척도는 김갑숙·최외선(1992)과 최규련(1994)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배우자와의 대화, 성생활, 가치관, 성격, 생활습관, 자녀양육 및 지도, 경제적 측면, 친정과의 관계, 시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물어보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만족의 정도에 따라 0~10까지의 점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결혼갈등정도 척도도 위와 같은 영역에서 느끼는 갈등정도를 물어보는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갈등정도에 따라 0~10까지의 점수로 표시하게 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10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였으므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10이다.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의 값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0.92,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0.90, 남편의 결혼갈등정도의 경우 0.89,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의 경우 0.88이다.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정도에 대한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연 령: 연령 자체보다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예상되므로 35세이하, 36~40세, 41~45세, 46세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한 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 하였다.

개인수입: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세집단(하, 중, 상)으로 분류하여 가변수화 하였다.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종교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한 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 장 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 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은 대전, 충청도, 경상권은 경상도, 부산, 대구, 강원도, 전라권은 전라도, 광주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성격특성 변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등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89)가 제작한 성격검사 질문지에서 각각의 성격특성에 대해 35개 문항씩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로 대답하면 1점, 아니오로 대답하면 0점으로 하고(역으로 질문한 문항은 역산하였음), 각각의 성격특성에 대한 35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0~1점이며 이렇게 계산된 점수들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Cronbach Alpha계수의 값은 남편의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의 경우 각각 0.85, 0.83, 0.85, 0.79이며, 부인의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의 경우 각각 0.82, 0.85, 0.84, 0.86이다.

IV. 결과 및 해석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6.30,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5.84로 쌍체 t-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갈등정도의 평균은 3.79, 부인이 지각하는 결혼갈등정도의 평균은 4.09로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갈등정도가 부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1. 남편의 결혼만족도, 결혼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1〉을 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남편이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6~40세의 남편에 비해 35세 이하의 남편들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개신교의 남편이 무종교인 경우보다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본인 연령	=1(35세이하)	0.767*	0.122*	0.804*	0.128*	0.779*	0.124*
	=1(41~45세)	0.019	0.005	0.071	0.018	0.027	0.007
	=1(46세이상)	0.213	0.048	0.266	0.060	0.234	0.053
본인 교육수준	=1(중졸)	-0.451	0.080	-0.410	-0.072	-0.341	-0.060
	=1(대졸)	0.305	0.080	0.226	0.060	0.177	0.047
본인 수입	=1(하)	-0.170	0.023	-0.013	-0.002	0.136	0.019
	=1(상)	0.193	0.049	0.123	0.032	0.088	0.023
본인 종교	=1(개신교)	0.575*	0.130*	0.610**	0.138**	0.592**	0.135**
	=1(천주교)	-0.036	-0.006	0.004	0.001	-0.055	-0.009
	=1(불 교)	0.478	0.098	0.505*	0.104*	0.501*	0.103*
본인 성장지	=1(충청권)	-0.901**	-0.133**	-0.887**	-0.131**	-0.887**	-0.132**
	=1(경상권)	-0.121	-0.020	-0.141	-0.023	-0.206	-0.034
	=1(전라권)	-0.234	-0.039	-0.262	-0.043	-0.409	-0.067
본인 안정성				1.735**	0.169**	1.715**	0.167**
본인 지배성				0.255	0.025	0.452	0.044
본인 사회성				0.020	0.002	-0.288	-0.028
본인 책임성				0.891	0.069	0.708	0.056
배우자 안정성						0.809	0.076
배우자 지배성						-0.842	-0.087
배우자 사회성						1.215*	0.113*
배우자 책임성						0.648	0.058
상 수		5.945		3.929		2.882	
R^2		0.082		0.127		0.157	
F		2.705**		3.366***		3.417***	

주) 연령(가변수 조작후 제외된 범주: 36~40세)
교육수준(가변수 조작후 제외된 범주: 고졸) 개인수입(가변수 조작후 제외된 범주: 중)
종교(가변수 조작후 제외된 범주: 무종교) 성장지(가변수 조작후 제외된 범주: 수도권)
* p<0.05 ** p<0.01 *** p<0.001 이 주는 이후의 모든 표에 해당됨.

불교인 경우도 무종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에서는 수도권에서 자란 남편들보다 충청권에서 자란 남편들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에서는 안정성이 높을 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격이 안정적이면 대인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이는 결혼관계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충동성이 결혼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연구결과로 보인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에서는 부인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이 결혼의 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인이 대인관계를 잘 한다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결혼생활에서 부인에게 표현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model에 포함시켰을 때는 8%정도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성격특성 변수들을 model에 추가했을 때에는 13%정도의 설명력을 보

여 설명력이 5%정도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배우자의 성격특성 변수들을 추가했을 때는 설명력이 3% 증가하여 16%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와 관련변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회귀분석의 3단계를 보면 36~40세의 남편들에 비해 35세이하의 남편들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개인 수입이 중집단에 비해 상집단이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무종교인 경우보다 개신교인 남편들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격특성에서는 안정성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안정성은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갈등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주위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성격은 갈등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에서는 부인의 사회성이 높을 수록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타인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포함된 1단계에서는 설명력이 8%였는데 성격특성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15%로 설명력이 7%증가하였다. 배우자의 성격특성변수들을 추가했을 때는 설명력

〈표 2〉 남편의 결혼갈등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본인 연령	=1(35세이하)	-0.625*	-0.107*	-0.667*	-0.114*	-0.610*	-0.105*
	=1(41~45세)	0.106	0.029	0.039	0.011	0.115	0.032
	=1(46세이상)	0.194	0.047	0.111	0.027	0.172	0.042
본인 교육수준	=1(중졸)	0.257	0.049	0.206	0.039	0.091	0.017
	=1(대졸)	-0.246	-0.070	-0.202	-0.057	-0.164	-0.046
본인 수입	=1(하)	0.255	0.038	0.058	0.009	-0.061	-0.009
	=1(상)	-0.433*	-0.120*	-0.364*	-0.101*	-0.359*	-0.100*
본인 종교	=1(개신교)	-0.374	-0.092	-0.417*	-0.102*	-0.403*	-0.099*
	=1(천주교)	-0.615*	-0.106*	-0.633*	-0.109*	-0.563	-0.097
	=1(불 교)	-0.066	-0.015	-0.088	-0.020	-0.081	-0.018
본인 성장지	=1(충청권)	0.370	0.059	0.354	0.056	0.359	0.057
	=1(경상권)	0.254	0.045	0.220	0.039	0.274	0.049
	=1(전라권)	-0.197	-0.035	-0.147	-0.026	-0.020	-0.004
본인 안정성				-1.312*	-0.138*	-1.293*	-0.136*
본인 지배성				0.328	0.035	0.218	0.023
본인 사회성				-1.009	-0.104	-0.738	-0.076
본인 책임성				-1.026	-0.087	-0.909	-0.077
배우자 안정성						-0.763	-0.077
배우자 지배성						0.311	0.035
배우자 사회성						-1.498**	-0.150**
배우자 책임성						-0.152	-0.015
상 수		4.096		6.311		7.435	
R^2		0.084		0.145		0.177	
F		2.783***		3.911***		3.946***	

이 3% 정도 증가하여 설명력이 18%가 되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정도와의 관련변수들을 비교해보면 35세이하 집단, 개신교, 안정성, 배우자의 사회성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서는 종교가 불교, 성장지가 충청권인 경우가, 갈등정도에서는 수입이 상인 경우가 관련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 종교, 본인의 안정성, 배우자의 사회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만족도는 성장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충청권과 같이 성역할 기대가 보수적인 경우,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갈등정도는 수입이 상이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경제력이 남편이 느끼는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갈등정도의 회귀분석을 비교해 보면 결혼만족도에 비해 갈등정도의 경우 자신의 성격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이 더 증가하였다. 배우자의 성격을 추가했을 때는 결혼만족도와 갈등정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즉, 남편의 경우 결혼갈등이 만족도에 비해 자신의 성격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2. 부인의 결혼만족도, 결혼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3〉에는 부인이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관련변수들이 나타나 있다.

〈표 3〉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본인 연령	=1(35세이하)	0.464*	0.114*	0.558*	0.136*	0.472*	0.116*
	=1(41~45세)	0.063	0.016	-0.069	-0.017	-0.089	-0.022
	=1(46세이상)	-0.506	-0.063	-0.716	-0.088	-0.865*	-0.106*
본인 교육수준	=1(중졸)	-0.512*	-0.122*	-0.373	-0.089	-0.317	-0.075
	=1(대졸)	-0.053	-0.012	-0.128	-0.029	-0.145	-0.033
본인 수입	=1(하)	0.272	0.070	0.084	0.021	0.053	0.014
	=1(상)	1.059*	0.110*	0.859	0.090	0.864	0.090
본인 종교	=1(개신교)	-0.004	-0.001	0.092	0.024	0.112	0.029
	=1(천주교)	0.323	0.065	0.341	0.068	0.337	0.067
	=1(불 교)	0.215	0.047	0.189	0.042	0.188	0.041
본인 성장지	=1(충청권)	-0.021	-0.004	0.098	0.017	0.078	0.014
	=1(경상권)	0.038	0.007	0.025	0.005	0.015	0.003
	=1(전라권)	0.802**	0.134**	0.609*	0.102*	0.529	0.088
본인 안정성				2.561***	0.249***	2.562***	0.249***
본인 지배성				0.515	0.055	0.582	0.062
본인 사회성				0.599	0.057	0.433	0.041
본인 책임성				1.225*	0.113*	1.083	0.100
배우자 안정성						1.195*	0.120*
배우자 지배성						0.263	0.027
배우자 사회성						0.222	0.022
배우자 책임성						-0.266	-0.022
상 수		5.467		2.532		1.844	
R^2		0.073		0.180		0.196	
F		2.405**		5.035***		4.467***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 보면 36~40세의 부인들에 비해 35세이하의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부인들도 결혼초기에는 만족도가 높다가 중기에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6~40세의 부인들에 비해 46세 이상은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남편과 달리 부인의 경우 종교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에 따라서도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특성에서는 안정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은 남편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성격이 안정적일 때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사회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과는 달리 남편에게는 표현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포함시킨 1단계에서는 설명력이 7%였는데 성격특성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8%로서 설명력이 11% 증가하였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을 추가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 정도 증가하여 20%가 되었다.

<표 4>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본인 연령	=1(35세이하)	-0.274	-0.070	-0.315	-0.080	-0.284	-0.073
	=1(41~45세)	0.171	0.045	0.286	0.075	0.268	0.070
	=1(46세이상)	0.560	0.073	0.815*	0.104*	0.947*	0.121*
본인 교육수준	=1(중졸)	0.600**	0.150**	0.492*	0.123*	0.385	0.096
	=1(대졸)	0.018	0.004	0.094	0.022	0.160	0.037
본인 수입	=1(하)	-0.312	-0.084	-0.126	-0.034	-0.043	-0.011
	=1(상)	-0.634	-0.069	-0.466	-0.051	-0.456	-0.050
본인 종교	=1(개신교)	-0.056	-0.015	-0.157	-0.043	-0.166	-0.045
	=1(천주교)	-0.160	-0.034	-0.187	-0.039	-0.139	-0.029
	=1(불 교)	0.029	0.007	0.038	0.009	0.060	0.014
본인 성장지	=1(충청권)	0.186	0.035	0.091	0.017	0.110	0.020
	=1(경상권)	0.048	0.009	0.094	0.018	0.099	0.019
	=1(전라권)	-0.538	-0.094	-0.333	-0.058	-0.291	-0.051
본인 안정성				-1.961***	-0.199***	-2.003***	-0.203***
본인 지배성				-0.098	-0.011	-0.209	-0.023
본인 사회성				-0.919	-0.092	-0.727	-0.073
본인 책임성				-1.593**	-0.154**	-1.189*	-0.115*
배우자 안정성						-0.715	-0.075
배우자 지배성						-0.017	-0.002
배우자 사회성						-0.183	-0.019
배우자 책임성						-1.600*	-0.135*
상 수		4.232		7.095		8.487	
R^2		0.063		0.167		0.200	
F		2.049*		4.585***		4.580***	

〈표 4〉에서는 부인이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와 관련변수들이 나타나있다. 회귀분석의 3단계를 보면 36~40세의 부인들에 비해 46세이상의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수입, 종교, 성장지에 따라서는 갈등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격특성에서는 안정성과 책임성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 자신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책임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성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격특성에서는 남편의 책임성이 높을수록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책임감 있는 생활이 부인이 느끼는 결혼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남편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포함된 1단계에서는 설명력이 6%였는데 성격특성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17%로서 설명력이 11% 증가하였다. 배우자 성격특성을 추가했을 때는 설명력이 3% 증가하여 20%가 되었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정도에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만족도와 갈등정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변수는 46세이상집단, 안정성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는 35세이하 집단, 배우자의 안정성이 유의한 변수로, 갈등정도에는 본인책임성, 배우자의 책임성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 즉, 46세이상 집단, 본인의 안정성은 부인의 결혼만족와 갈등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부인이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안정적인 성격일 때 높아지며 부인이 느끼는 갈등정도는 본인의 책임감이 높을 때, 또한 남편의 책임감이 높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와 갈등정도는 서로 다른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결혼의 질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은 배우자의 성격특성변수들보다는 본인의 성격특성변수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남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설명력과 비교해보면 남편들보다는 부인들의 결혼의 질이 자신의 성격에 따라 더욱 많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결혼의 질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성격보다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약간 더 설명된다. 남편의 결혼갈등은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더 크다. 그러나 부인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적다.

3.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비교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관련있는 변수들을 비교하면 연령의 경우 남편, 부인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교육수준과 수입에 따라서는 남편, 부인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개신교, 불교가 무종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의 결혼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충청권이 수도권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 없었다. 자신의 성격에서는 남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안정성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부인의 사회성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안정성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 관련있는 변수들을 비교하면 연령의 경우 남편, 부인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정도가 커졌다. 교육수준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상이면 중에 비해 남편이 느끼는 갈등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는 자신의 수입이 유의한 변수로 나

<표 5>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비교

		결혼만족도		결혼갈등정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본인 연령	=1(35세이하)	○	○	○	
	=1(41~45세)				
	=1(46세이상)		○		○
본인 교육수준	=1(중졸)				
	=1(대졸)				
본인 수입	=1(하)				
	=1(상)			○	
본인 종교	=1(개신교)	○		○	
	=1(천주교)				
	=1(불 교)	○			
본인 성장지	=1(충청권)	○			
	=1(경상권)				
	=1(전라권)				
본인 안정성		○	○	○	○
본인 지배성					
본인 사회성					
본인 책임성					○
배우자 안정성			○		
배우자 지배성					
배우자 사회성		○		○	
배우자 책임성					○

타나지 않았다. 종교에서는 남편의 결혼갈등정도에서 개신교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지는 남편, 부인의 갈등정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인의 성격에서는 안정성이 남편,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책임성은 부인의 결혼갈등정도에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성격에서는 남편의 갈등정도에는 배우자의 사회성이, 부인의 갈등정도에는 배우자의 책임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남편이나 부인 모두에게 있어서 본인의 안정성이 결혼만족도나 결혼갈등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정성은 갈등이 적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성은 갈등이 적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기대하는 성격특성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남편에게 갈등이 적은 결혼생활을 위하여 사회성보다는 책임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의 안정성을 중시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서구사회의 영향으로 차차 결혼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작업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같은 결혼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부인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을 각각 조사하고 남편과 부인의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를 분석하고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갈등에 대해서 각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실시할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초기보다 결혼중기에 있는 집단들의 결혼갈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중기 집단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의 결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자녀와의 대화법 등에 관한 가족생활교육이나 노부모를 이해하고 노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충청권이 성장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유형이나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부부를 대상으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부부역할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남편의 책임성이 높을 수록, 수입이 높은 경우 결혼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는 가족부양이라는 도구적 역할이 기대되는 반면, 부인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는 표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기대되는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가 변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할 때 부인들은 많이 참여하는 편이나 남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교육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인들의 결혼의 질이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부인들 만을 대상으로 안정성, 책임성 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부인들의 결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남편의 결혼의 질이 배우자의 사회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인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은 남편의 결혼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취업 주부들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미숙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부인의 경우보다 정도는 적으나 남편의 결혼의 질도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므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사원교육의 형식으로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부인의 결혼의 질이 남편의 책임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부인의 결혼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여 가정에서 부인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주부양자로서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자칫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변수들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결혼의 질의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친밀감 같은 것은 성격특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권희완(1994).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금온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갑숙, 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학지, 10(2). 133-143.

김경신, 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0). 성격유형과 유머감각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121-138.

김현정, 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경실(1995).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전업주부 부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숙경(1996). 부부간의 의사결정 및 역할수행구조와 결혼적응-자녀를 둔 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법문사.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89). 표준화성격진단검사. 서울코리안테스팅센타.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1997).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 학지사.

이종숙(1987).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현희(1989).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의 근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성순(1998).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차이분석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표(1997).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보선(1994).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원희(1992).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정희(1995). 도시주부의 배우자 역할 평가와 결혼만족도-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지영(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rohan, S.E. (1996). Marital quality and conflict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frican

American and whit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33-944.

Larson, J.H. & Holman, T.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Oh, S.J. (1997). The change of the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Korea.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127.

Rogers, S.J. (1996). Mothers' work hours and marital quality: Variations by family structure and family siz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06-617.

Weigel, D.J. & Ballard-Reisch, D.S. (1999). How couples maintain marriage: A closer look at self and spouse influences upon the use of maintenance behaviors in marriages. *Family Relations, 48*, 263-269.

Wilkie, J.R., Ferree, M.M. & Ratcliff, K.S. (1998).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77-594.